

강원 민통선 불교유적 '최초' 정리

신종원 교수 심원사 누석대등 민속신앙과 융화과정 분석

남북한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강원도 북부지역의 불교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향토사를 정리한 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신종원 교수

남북한 접경지역의 문화조사 연구 중 향토사 분야의 연구 성과물이다.

신교수는 △철원군 심원사 석대암(石臺庵)의 누석대(累石臺)를 중심으로 이형(異型) 불탑과 누석대형 불탑의 민속기



강원도 정선군 문곡리의 자문사 돌탑(좌)과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미륵

원석을 연구하고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미륵 △양구군 용다사 범종 △인제군 지역의 석탑과 대왕각(大王閣), 기린방당(麒麟方堂) △고성군 건봉사 백운고 준공 명(銘) 등을 유적과 문헌을 통해 조사, 이 지역 향토사의 체계화를 시도

했다. 특히 신교수는 "석대암의 석대(石臺)는 민속상의 누석대(서남당 결의 돌무더기)와 형태상 차이가 없다"며 "석대암의 경우는 절을 짓고 탑을 세움에 있어 재래의 방식대로 탑을 쌓아올렸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경북 선산 도리사 탑과 군위 삼존석굴의 탑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탑들이 재래의 누석대형 탑에서 한 단계 발전한 탑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이해할 때 한국 불탑의 시원(始原)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고유의 석재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결과 한국불탑의 시원형 내지는 중국계 불상과 연원이 닿지 않은 불탑에 대한 연구는 거의 황무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따라서 관련기록이 거의 없는 이형(異型)탑에 대한 연구는 전통 민속신앙과 불교의 융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 것 이라며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형적인 마을미륵인 간동면 용호리 미륵의 민속신앙적 요소를 답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분석, 불교의 토속화 과정을 보여준 연구도 관심을 끈다.

그간 민간인 통제구역의 자연환경, 지형지질과 기상 등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조사보고서인 <휴전선일대의 연구> (강원대출판부, 1987)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보고서> (강원도, 1987)가 있었으나 인문분야의 조사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경 기자

종교법 법학적 입장에서 조명

손성교수, 政敎 관계등 현안 분석



손성교수

최근 조계사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난입과 관련, 실정법과 종교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법에 대한 법학적 의의를 조망한 글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법대 손성교수가 동국대 <불교대학원논총> 제2집에 발표한 '종교법의 의의'란 이 논문은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과 종교법에 있어서의 종교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손교수는 "통교권(統敎權: 종교제도 또는 政敎관계), 치교권(治敎權: 교단의 지도권력, 행정권력 및 교도권)의 법적 문제를 종교단체법인의 문제를 종교 및 종교단체

의 특유한 생활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이라고 정의한다.

손교수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불교재산관리법, 정통사찰보존법, 기독교재산관리법에 대한 논란과 종교법인의 입법 요청들이 입법상의 문제가 되고, 헌법에서 종교(宗教)의 자유 보장이 한층 완전해지고, 종교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교육기본법 속에 들어가게 되어 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실제 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또한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국가의 종교정책적 정황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종교재산에 대해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종교조직 중 대표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신고토록 하는 문제 등을 들었다.

"월정사 9층탑 10세기초 조성"

문수신앙바탕, '신의' 스님 건립 유력

精文研 강병희교수 주장

월정사 8각9층석탑의 조성시기는 기존의 11세기에서 올려잡은 10세기 초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문화연구원 강병희교수는 지난 24일 미술사학회 월례 연구발표회에서 "월정사 8각9층탑의 조성 배경"이란 발표문을 통해 "월정사탑은 대체적인 탑의 양식으로는 통일신라 말까지도 올려 볼 수 있



강병희교수

나 기단부의 연화, 탑내외의 출토유물을 고려해 보면 10세기 초에 조성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탑을 조성한 인물로는 "당시 명주지방 호족 세력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그들의 비호 아래 인근 지방까지도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물산파의 개조인 범일(梵日:810~889)의 10세기 중의 한명인 신의(信義) 두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월정사 탑내에 봉안된 사리에 대해서는 우파국다와 석가세존의 사리라는 두가지 사료가 있으나 우파국다의 사리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하고, 탑의 조성배경에는 문수신앙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돌이 아닌 도리의 참뜻은

교리 가운데 자주 돌이 아닌 도리(不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참뜻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무주상보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신순남·경북 포항시 장흥동>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모두가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고, 서로 말과 말이 통하는 것, 즉 식물과 곤충, 아니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존중하며 알리고 설켜서 돌아 가는 것, 이 소용이 바로 '교(敎)'인 셈이죠.

그 통합에는 죽은 세상 산 세상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꼭 말이 따라야만 통하는 게 아니고 말이 소식이 전달되는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 만생에 천백억 화신으로 응해주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뱀이 원한데 한 찰나에 뱀으로 응해주는데 그 모습까지도 돌이 아니기에 결집없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타나시고 지장보살, 약사여래를 염하면 또

공 당신만이...라고 하게되면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맞기는 결과가 됩니다. 주인공을 생각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게 아닐까요?

<유양호·서울 서초구 우면동>

제 말을 잘 알아 들어서 합니다. 내가 '주인공'을 맡고 주인공에 맞기는 도리를 얘기해 주니까 어떤 스님은 당신의 책에다가 '타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신과 무엇이 다르냐?'고 썼는데 아마 적지 아니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결코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대상인듯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백이면 백 주인공을 바라보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선 내가 있으니 주인공이 대상처럼 여겨졌지요.

그러나 본래 나는 초입니다. 누구나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돌고 돌아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럼 어느 때의 모습이 진정한 '나'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아 지금에 이른 이 모습을 '나'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에서 듣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해 줍니다.

보낼 곳: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렇게 나누십시오. 부처님의 나누심에는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산 세상 죽은 세상 가림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무 조건없이 응해주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마음세계에서 근본이 같고 무소불용이니 결모음이 다르다해서 어찌 풀이다. 때때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으로 보는 돌이 아니라고 하고 그 돌 아닌 도리를 깨달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돌이 아닌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할 것도 없지요. 제 자신이 저에게 무엇을 하고서는 누굴 위해 무엇을 했노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지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밥을 먹게 해 주었노라는 생각을 내지는 않지요. 그와같은 것, 그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본래가 돌이 아니니 줄 것도 위할 것도 없이, 즉 했다는 상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주상보시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상대를 둘로 보고 '~에게' '~위해서' 했노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본래가 돌 아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했다'는 머무는 마음, 먹은 마음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무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보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인공 찾는 것도 대상이 아닐까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

공' 또는 '나'라고 하는 그놈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요? 또 있습니다.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도는데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것이며, 가령 한순간을 집어서 그때의 '나'를 나의 실체라 한다면 그 찰나 전이나 찰나 후의 모습은 또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누차에 걸쳐 말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딱 못박아 생각하는 그 '나'는 결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의식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을 상정해 놓고 '네가 형상시켰고 끌고가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양 착각하는 그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없는 '나'이니 죽일 것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 그 생각부터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 속 빠진 주인공에 맞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없고 주인공이 있다, 밖으로 찾게 아니라 일단 안으로 되돌려라, 그렇게 해서 그 딱딱한 통속의 '나'가 죽는 도리를 일러주고자 '주인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을 또 어떤 실체로 관념화 할까 싶어 공(公)이 아닌 공(空)이라 했습니다.

안으로 관하는 길에서는 주인공만 남고나, 상대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참 나가 드러날 때 주인공도 방편이요 이물인줄 알 것입니다.

통도사

황화각

- 大護法不見僧過 (대호법불견승과)
- 善知識能調御情 (선지식능조율정)
- 百戰英雄知佛法 (백전영웅지불법)
- 再來菩薩說家常 (재래보살설가상)
- 永使蒼生離苦海 (영사창생이고해)
- 恒教赤子有慈航 (항교적자유자향)

큰 호법은 절집의 흥 허물 을 보지 않고 선지식은 능히 세상물정을 살필 줄 아네 백전영웅은 부처님 법을 알고 거듭 화현한 보살은 일상의 도리를 살려주네 길이 중생들로 하여금 고해를 여겨게 하고

학승의 면학 독려하는 경구

항상 친자식처럼 보살과 잘 인도해 주시네

해설 통도사 황화각은 큰 강당이다. 전통 강원으

로 쓰이는 이 황화각은 1백여 칸 규모의 건물로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초창 되었다가 여러번 중창을 거쳤다. 현재의 건물은 1899년 성해(聖海)스님이 중수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은 통도사승가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용도가 학생들이 공



권영한

학승은 글자 그대로 공부하는 스님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공부는 경전을 통한 공부를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학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절집의 흥

허물도 세상물정도 분명한 지혜로 살필 줄 아는 경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거듭 화현한 보살은 누구인가. 공부하는데 지혜와 인력을 보태주는 보살이 거듭거듭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보현이라든가 하는 보살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학인)도 화현한 보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동 경인중 교사>

海東佛敎大學

- 통신 수강생 모집 -

- 법사(法師)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 등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할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이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불교의식 과정
조석예불, 불공시식, 49제,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 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현대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

문의처: 110-320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 학 원 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5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업반: 요잡바라, 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3개월(과과정)
- 구비서류: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5년 6월25일~7월24일까지
- 개강일시: 1995년 7월24일 오후5시 정각
-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시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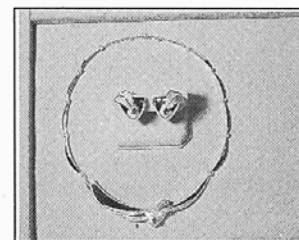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무원 허리우드극장에서 증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향빌딩 2층
☎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귀금속 靑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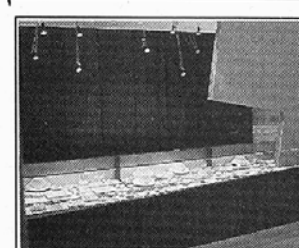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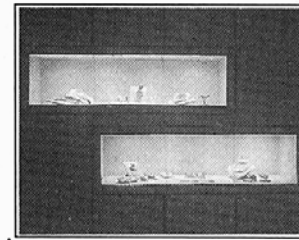
'靑雨' 劉慈世 전시경력

-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21회
- 1976 파리 니콜레상 공모전 입상
-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추위 전람회 출품
-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 1979 파리 프리마르 로지에 공모전 입상
-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박람회 회랑)
-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靑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靑雨에서 당신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